

“인과법 상담은 포교의 훌륭한 방편”

〈불교문예연구〉 ‘불교와 상담’ 주제 특집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가 최근 펴낸 〈불교문예연구〉 제2집에는 불교상담을 특집으로 다양한 논문이 실렸다.

“점찰법, 상담 방편 될 수 있어”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현주 씨는 〈불교문예연구〉 2호에 발표한 ‘점찰선악업보경에 나타난 마음챙김과 상담의 상관성 고찰’ 논문에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전국 사찰에서 성행했던 ‘점찰법(占察法)’이 현대의 상담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씨는 “점찰법은 점술과 같이 맹신에 의한 예언법이 아닌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인과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살펴 참회하는 수행법”이라며 “원광 법사가 점찰법회라는 대중친화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은 대중 심리상담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결과 참회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수용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현대 상담 기법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베다문화에 현대 상담 이론 근거”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는 ‘아유르베다 상담과 불교상담의 상관성 연구’를 통해 인도문화 속에서의 상담기법을 소개하고, 현대 불교 상담기법에 의 이론화 근거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철학이자 생활과학으로 이미 상담의 특징을 완벽

서양 심리학·의학과 차이

점찰법·베다문화 등에 상담요소

불교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히 지니고 있다”며 “이 같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론 체계가 있음에도 서양 상담이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아유르베다는 건강과 장수, 회춘, 해방을 목표 한다. 불교와 아유르베다는 적극적으로 신체적 치료에 나서는데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세상을 고통으로 보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궁극 목표로 하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식이요법 등을 통한 신체적 치유, 심리치료에 따른 심리치유,



불교상담개발원의 상담 모습. ‘불교와 상담’ 특집에서는 불교문화에 현대 상담 기법의 이론적 근거가 있음과 포교방편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문들이 수록됐다.

의식의 올바른 작용을 증진하는 영적 치유의 세가지 단계의 구조를 불교 상담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상담은 출세간 행복 모두 강조”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장은 ‘불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불교의 원리가 어떻게 상담에 적용되는지 설명했다.

박 소장은 “서양 심리학과 의학에서 다루는 심리장애는 정상이라고 여기는 범주

를 벗어난 이상 증상을 위주다. 반면 불교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흔히 겪는 불만족, 괴로움으로 인한 결과로 범부가 현인이 되도록 돕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박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상담은 출세간적 행복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불교 명상법을 활용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은 현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성 주도의 여성권 신장, 한계 있어”

류경희 박사, 종교와젠더연구소 불교여성 포럼에서 주장



류경희 박사

“초기불교 교단에서 여성의 출가는 불교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기존 남성 위주의 교단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초기불교 교단에서도 결국 남성 위주의 카스트제도와 흡사한 체계가 구축됐다.”

류경희 박사(서울대 외래교수)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와젠

더연구소(소장 옥복연)가 개최한 ‘불교발생의 시대적 배경과 여성’ 포럼에서 초기 불교 당시 인도사회의 개혁으로 여성출가가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불교계의 여권 신장을 주장했다.

류 박사는 “대중신앙과 괴리된 브라흐만교는 가장장적인 권위를 앞세웠다”며 “대중신앙의 수용과정에서 불교교단에 여성권이 적극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류 박사는 초기불교에서 승가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평신도들에게 의존하였고, 양자간 유대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류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마을과 농경지의 수호신 등에 나타나는 여성적 이미지가 불교에 투영됐다고 주장했다.

류 박사는 이어 “하지만 당시 사문전통이 인도사회의 남녀불평등 문제나 가장장적 관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초기불교에서 여전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여수 흥국사 대웅전

긴급복구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처마지붕 일부가 무너진 여수 흥국사 대웅전(보물 제396호)에 대한 긴급현지조사를 3월 14일에 시행하고, 지붕과 기와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파손된 목부재와 기와를 수습하고 강관벽체를 설치하는 등 긴급안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긴급복구 작업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여수 흥국사 대웅전은 2014년에 지붕과 목공부 보수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하는 과정에 있으며, 또 2012~2013년에는 정밀실측조사보고서(1.9억 원) 작성, 여수 흥국사 대웅전 단청 모사보고서(1.7억 원) 작성 등 과거 행해진 역사의 흔적과 기록 등을 상세하게 기록 보존 하는 등 사전조사를 완료하였다.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등에 따른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수 흥국사 대웅전은 정밀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3월 17일부터 전문가단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전국 사찰 소장 목판 일제 현장 조사 시작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전국 사찰 소장 목판 일제조사’를 3월 말부터 본격 시작한다. 연구소는 사업 시행에 앞서 사찰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인 소장가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사찰 소장 목판 일제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1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일환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그 가치

를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목판에 대한 전수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일선 사찰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흩어진 목판과 누락된 목판을 새로 찾아 정확한 목판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2014년 조사 대상은 인천·경기, 충청, 전라 지역 54개 사찰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재연구소 목판 일제조사 대상 사찰

지역	지역	사찰	지역	지역	사찰	
인천시	고양시	광주시	충남	금산군	신안사 (조계종)	
				홍성군	용봉사 (조계종)	
				부여군	오덕사 (조계종)	
경기	남양주시	안성시	전북	연기군	석련사 (·)	
				김제시	금산사 (조계종)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충청	문수사 (조계종)	
					홍곡사 (조계종)	
	의정부시	화성시	양평군	보은군	익산시	송림사 (조계종)
					전주시	불정사 (태고종)
	화성시	양평군	보은군	청원군	고창군	선운사 (조계종)
					무주군	향산사 (조계종)
	충북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원주군	송광사 (조계종)
					정읍시	화엄사 (·)
충남	아산시	예산군	전남	순천시	선암사 (조계종, 태고종)	
				송광사 (조계종)		
충남	아산시	예산군	전남	도선암 (태고종)		
				여수시	흥국사 (조계종)	
충남	아산시	예산군	전남	나주시	다보사 (조계종)	
				곡성군	도림사 (조계종)	
충남	아산시	예산군	전남	구례군	천은사 (조계종)	
				담양군	화엄사 (조계종)	
충남	아산시	예산군	전남	영광군	연흥사 (조계종)	
				영암군	도갑사 (조계종)	
충남	아산시	예산군	전남	장성군	백양사 (조계종)	
				해남군	대흥사 (조계종)	
충남	아산시	예산군	전남	화순군	쌍봉사 (조계종)	

한국명상담학회, ‘현상학’ 학술세미나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한국명상담학회(회장 인경)는 4월 5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현상학의 학제적 연구’를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숙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의 정년 퇴임을 겸해 열리는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제21대 학회장 선거 공고

4월 18일 선거 예정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3월 18일 제21대 학회장 선거 공고를 고시했다.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가능하며 선거인 자격은 정회원 자격에 한한다.

입후보 등록은 4월 2~3일 진행되며 이메일(hanbulhak2014@daum.net)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선관위에서 검토해 4월 7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최종 선거인 확정 명부는 4월 11일 공지되며 선거인 개별에게 이메일로 발송된다.

선거는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종료 직후 열린다.

노덕현 기자

(사)대일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인재불사 포교제일 불국정토 건설의 기치를 걸고
한마음 한 뜻으로 수행과 정진을
함께 하실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금강성련 합장
전화 : 053)313-3393, 425-3393, 010-4912-3373
총본산 : (총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79-1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영혼의 소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금강성련스님의 철구

출가하여 승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따뜻한 옷과 잠자리 및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요.
그렇다고 명예와 이익을 구함도 아니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잇기 위함이요,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 서문 중에서
(네이버,다음에서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 |
저자 금강성련스님 | 값 15,000원 | 223쪽

월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108배

표정 + 자세 + 동작 + 호흡법 + 동작알아차림 +
염불대입 + 깨달은 절

700만배 청견스님 깨달은 절수행 완전공개

**완벽하게 절하면!
만병통치유**

깨달은 절수행 배우시고
부처님 가피 100%
건강소원성취 100%

♣ 스트레스 0 불면증 100% 피로즉석 우울증
냉병 화병 상기병은 같은병

절교육 절수행 점검 상담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 주 소 : 대구 수성구 매곡동 1344-23 다비지 5층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 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악문화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